국가전략, 제26권 4호 2020년 겨울호, 151~177.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쟁전략: 전략적 화력마비를 통한 "초전격전(Hyper-Blitzkrieg)"

한 윤 기* · 손 한 별**

❖ 요 약 ❖

본 논문의 목적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전쟁 기획과 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져온 위협의 변화도 강력하지만, 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첨단 군사기술이 가져온 전쟁혁명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획함에 있어 위협을 상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핵사용과 제3국의 개입을 방지하면서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전격전(Hyper-Blitzkrieg)"을 한국의 전쟁전략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의 전쟁수행개념으로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미사일 전력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화력마비를 추구한다. 북한의 전략적 화력공격 효과를 상쇄하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며, 정권제거 및 대안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각 단계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전략개념의 달성을 위해 화력마비를 위한 핵심능력, 미사일방어주기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능력,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계, 전담부대의 창설, 국민방호 등은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전쟁전략, 전격전, 초전격전, 화력마비, 신속종결기동, 정권교체

Ⅰ. 서 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남북한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

DOI: 10.35390/sejong.26.3.202011.006
* 제1저자, 합동군사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교신저자,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를 위해서는 평화체제 수립이 필수적이며, 평화체제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은 나아가서는 "포위심성"으로 인해 안보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환적인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부승찬, 2017).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욱 강력한 외교·경제적 대북제재와 군사적 강압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같은 주장은 201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경우에 대비하여 군사적 "최선의 대안(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BATNA)"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박휘락, 2018).

하나의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내의 상반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한다는 군(軍)의 역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한국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실패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방부, 2018: 37-38).

따라서 우리 군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전방위로 확대된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통제 전략을 수립하여 위협을 감소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18년 이후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는 실제로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으로 작동해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군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1)]

---

1)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사실상의 통일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군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개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군의 전쟁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전략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우리군의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위한 기존 연구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군은 어떠한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목표와 방법,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같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

1. 한국의 전쟁수행환경

한반도의 미래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형 등(2019)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를 통해 고려 가능한 대부분의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미중간의 물리적 힘의 균형, 일본의 군사강국화, 경제적 상호의존성, 국제제도 영향력,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변화 등을 주요 동인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라 평화공존으로부터 중국형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4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발적 핵사고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돌발영향을 함께 분석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전쟁수행의 환경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수행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전쟁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수행해야 할 전쟁양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미래 전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Robert Johnson, 2014; Lawrence Freedman, 2017; Antulio Echebarria, 2007; Robert Scales, 2016; George Friedman and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으며,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하지 않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화해협력정책"). 군사적 안정을 첫 번째 원칙으로 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eredith Friedman, 1998, John Winkler et al., 2019 등). 많은 연구들은 사회문명의 전환, 정치·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한국군의 변화 등을 전쟁의 변화요인으로 꼽고 있다(계중읍 등, 2009; 합참, 2014; 고원, 2011). 특히 지구적 차원에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동북아의 지정학적 경쟁과 재래식 군비경쟁의 지속, 비대칭적 수정주의국가인 북한의 존재,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국가통제력의 유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군의 전쟁수행환경은 어떠한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역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북한 위협 양상의 변화이다. 특히 2018년 이후 북한이 새로운 대전략과 대남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는 결국 북한이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변화가 될 것이다. 대남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국과의 "상대적 전략게임"의 결과로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측정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현재 남북의 전력을 비교하였을 때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도시화된 환경,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줄 것이고, 대규모 전력을 직접 투입하여 남한의 영토를 직접 점령하는 방식의 전쟁은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북한군은 이미 핵·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략환경의 악화와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목표-방법-수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변화를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태생적인 지전략적 이점,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기회로 활용하여 "조국해방전쟁"의 목표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결국 전통적인 남한의 전지역 영토점령 방식의 전략을 수정하여 정권유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전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태현, 2015). 북한이 기습 및 단기결전의 성공가능성, 정권생존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오판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면전쟁을 일으킬 우려는 있지만, 전쟁 승리나 정권생존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합리적 판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요소는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다. 이미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경쟁을 시작한 이래, 미사일 기술의 확산이 지속되어 왔다. 세계 각국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을 설립하고 운영해왔으나,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주요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외교부, 2013). 각국의 미사일 기술은 장사정화, 고위력화, 초고속화를 거듭해왔으며, 최근에는 초정밀성을 갖추고 스마트 및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서 그 위협을 더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한반도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아시아 각국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2018년 3월 1일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소개한 러시아의 신형 최첨단 전략무기들이다.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화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가운데에서도, 핵추진 순항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Sarmat)', 극초음속 미사일인 '아방가르드(Avangard)'와 '킨잘(Kinzhal)', 핵추진 수중 드론 등 최신예 무기를 과시하였다. 미국도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비롯하여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총 1.25~1.46조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밝혔고, 2018년 2월에는 6,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폭격기 B-21, 장거리 핵순항미사일(LRSO), 콜럼비아급 잠수함, 연안전투함 등의 도입을 명시하였다. 중국의 첨단 무기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2018년 3월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6,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젠-20 등이 제시되었다(손한별, 2018: 39-40).

마지막은, "전쟁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군사기술의 발전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미래의 전쟁이 "보다 확산적이고, 다양하고, 파괴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전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주요 트렌드로 평시와 전시 구분의 모호성, 큰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비국가집단의 비중 증대, 원격공격능력의 증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들었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은 과학화, 정밀화, 무인화된 군사수단이다. 군사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의 특성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박상섭, 2018; 이성연 등, 2008; 이원락, 2003; 임인수 등, 2013; Michael O'Hanlon, 2018).

로버트 라티프(Robert H. Latiff, 2017: 21-25)는 전투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7가지로 분석하였으나, 한국의 전쟁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반도에서도 다차원 영역에서 비정형 전장이 형성될 것이다. 한국군도 협소한 지상영역을 극복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상,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전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시·정찰장비가 첨단화·무인화되고, 정보처리의 속도도 빨라지고 자동화된다. 전장 상황인식-결심-타격-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에서 인간요소는 최소화되고, 실시간 정보공유, 결심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휘통제체계가 발전할 것이다.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심 및 지휘통제체계는 핵심노드로서 적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전투 플랫폼은 더욱 증강되고 전장에서의 무인화 추세는 지속되어 유무인 복합체계가 활성화 될 것인데, 좁은 전장을 고려시 인명 피해는 극심할 것이며 초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피해도 불가피하다. 넷째, 미래전에서도 기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최소희생과 최소비용, 최단기간 내에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효과중심 작전이 실행되면서 전투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2. 전략적 요구사항

위에서 살펴본 전쟁수행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요구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상쇄(countervail)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위협평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수량만을 비교하는 방식(bean counting)'에서 벗어나 상대적 전략게임을 통해 상대의 목표, 방법, 수단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비대칭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군사전략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면,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추구했던 방식의 양적 군비경쟁은 전쟁을 억제하지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전략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충분한 능력으로 뒷받침해야만 위협을 상쇄할 수 있다(김태현, 2020).

둘째는 군사력 운영에 있어 "최소피해"의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한반도 전쟁불가"의 원칙은 남북한의 전쟁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국제적 지지 확보,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등을 고려한다면, 일단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피해의 원칙이 끝까지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단시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새로운 작전수행개념"과 궤를 같이 한다(연합뉴스, 2017.12.8.). 다만 실제 전장에서 최단시간과 최소희생의 원칙은 상호 모순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력 운영을 불합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피해의 원칙이 우선시된다. 또한, 최소피해의 원칙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셋째는 어떠한 형태의 핵사용도 방지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면서 북한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이 중첩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핵무기의 사용은 강대국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협소한 전구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수백 년 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에 있어 북한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핵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핵상황은 전쟁양상의 완전한 전환을 이끌 것이지만, 핵상황 속에서도 싸우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3국의 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강도 수준의 분쟁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이 개입을 꺼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한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압할 수 있어야 한다(손한별, 2017b). 반면에 한반도의 지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전면전이 발생하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군이 전쟁목표를 달성하고, 불필요한 상황악화를 통제하면서, 전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희생, 핵무기 사용방지와 같은 전략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국과 같은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쟁 발발시 최단시간에 종결되도록 하여 개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여건의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은 이러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수행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정치적 통일이나 군사력에 의한 북한지역 수복(收復)만으로는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상돈, 2013; 권양주, 2014). 전쟁만이 통일을 달성하는 유일한 경로는 아니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전쟁을 통해서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은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의 전쟁수행전략도 전쟁승리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통일여건의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Ⅲ. 현 군사전략의 비판적 검토

1. 현 군사전략의 개념과 제한점

그렇다면 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전쟁수행전략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변화와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군사비밀을 다 확인할 수 없고, 이른바 "참수작전" 논란과 같이 일반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송승종, 2017; 황소희, 2018; Patrick Johnson, 2012), 우선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만을 토대로 우리군의 군사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달성가능성을 평가해보자.

첫째는 "필요시 선제"이다. 한미동맹에 비해 열세에 있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기습공격을 통해 유리한 상황 속에서 전면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방사포, 잠수함, 특수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통해 기습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북한의 기습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과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작전계획5015"는 기존의 "작전계획5027"에 비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공격능력을 고려한다면 일단 공격을 받은 뒤 반격하는 기존의 계획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사포커스, 2015.8.27.).

이처럼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의 기습기도를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선제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한미동맹의 정보자산이 북한의 전 지역을 24시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북한이 전면전의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한반도 석권 전쟁이 아니라 제한전쟁을 의도했다면 대규모의 전력이 동 없이도 기습을 감행할 수 있다. 또 확실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선제타격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제타격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한 합의도 부재하다. 불필요한 확전을 저지하면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은 보다 엄밀하게 단계화되거나 범위와 내용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선제타격 전략은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둘째는 "조기공세 전환"이다. 한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세로 전환하여, 전장을 북한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작계5027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을 수십일 동안 방어하다가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하면 반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현재 작계5015는 기존에 비해 공세전환의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진다. 정보능력, 화력과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속도와 효과를 기반으로 한 전승을 달성하고 전쟁을 종결한다는 목표를 둔다(송영무, 2020: 44-45). 아울러 과거에 비해 지구적 차원의 타격이 가능해졌고 전략적 군수지원의 속도가 배가된 미국의 능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기에", "공세로 전환"한다는 개념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에게 있어 일반적인 원칙이자 선언적 구호인 것이지, 작전적 개념이 되기는 어렵다. 먼저 전쟁 초기에 예상되는 수도권 주민의 피해와 전선지역 한국군의 과도한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군이 얼마나 피해를 흡수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군의 밀집된 전력을 뚫고 평양-원산선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결국 현재의 전선지역에서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조기에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작전개념이 우리 군의 전쟁수행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는 "중심 무력화 마비"이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간전, 2003년 이라크전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기반작전(EBO)'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를 한반도 전구에도 적용하여 개전 초기에 북한 정권과 군의 중추신경망을 무력화하고자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요 군단사령부까지를 포함한 지휘시설, 평양 주요지역,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와 같은 핵심표적 700여 곳에 대한 선제적인 타격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 의지 자체를 마비시킨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YTN, 2016.3.7.) 물론 강력한 3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래식 타격능력만으로도 북한의 중심을 마비시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마비전략은 섬멸전략과는 다르다. 북한 주력과의 결전을 통해서 전쟁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중심(重心)을 마비(痲痺)시킴으로써 전쟁의 의지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단지 군사적인 수단만으로, 군사적인 표적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의지에 가장 타격을 입을만한 표적을 타격함으로써 마비가 달성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굳이 북한의 주력군과 맞닥뜨려 결전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는 위에서 밝힌 남북한 양측의 "최소피해" 원칙에도 부합된다.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 군의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군은 북한군 방어의 "주요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주력군의 일부와 교전하거나 특별한 조치없이 주력군을 회피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있다(송영무, 2020: 45).

넷째는 "국경선 확보"이다. 지역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다. 첫째는 새로운 반격의 여지를 차단하고, 다음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지역을 지리적으로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전제는 일견 당연한데, 한국에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가 자리잡고 있으며,(연합뉴스, 2016.6.27.)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역을 선점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북중 국경선 일대를 확보하는 것은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6.25전쟁에서도 국경지역을 완전히 석권하지 못하고 중국의 "인민지원군"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기반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반격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전쟁수행에 있어 국경선 확보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국경선 확보가 북한 정권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핵사용을 압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서는 북한 주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북한의 핵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둘째는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선 확보는 선언적 차원의 구호로만 두고, 전반적인 전쟁상황, 국내외 정치적 압박, 북한의 잔존 핵능력,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쟁수행전략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위에서 달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각 개념의 한계를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앞서 도출한 전략적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본다. 첫째, 현재 한국의 전쟁수행전략은 철저히 "지역기반전략"이다. 상대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상대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전투의 승리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업이다(클라우제비츠, 2016: 88-90). 6.25전쟁 당시만 해도 이러한 지역기반전략이 지배적인 전략으로서 전장을 지배했다. 2020년 현재 한국군의 군사전략도 최소한 목표와 원칙 측면에서는 이같은 지역기반전략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를 가진다. 먼저, 지역기반전략은 상대와 대칭적인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대칭전략"이다. 둘째는 축차적으로 지역을 점령해가는 "선형전략"이다. 모든 전장에서 동시통합전투를 추구하는 비선형전투와는 반대된다. 셋째는 상대의 중심을 타격하여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력을 섬멸해가는 "섬멸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피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간접접근이 아니라 최대저항선을 직접 지향하는 "직접접근전략"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기 어렵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자체를 우리 군의 물리적 군사력으로 상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군의 목표-방법-수단의 전략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손한별, 2018).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힘의 균형에 대한 오판'과 그로 인한 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먼저, 핵공격에 대한 방어 및 방호태세가 미흡하면 선제공격에 대한 유혹이 커진다. 둘째,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방안과 선제공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2] 다음

2) 선제는 시간적, 공간적, 작전적, 마인드의 선제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적의 예상을 벗어난 전쟁수

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돌입탄두(MIRV), 거리와 파괴력을 확대하고 있는 신형 방사포 등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화력 공격력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마지막으로는 핵공격에 대한 대응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사용 양상과 가능성에 대한 판단(김태현, 2016; 이호령, 2017), 전시억제의 구체적인 방안(류기현, 조홍일, 차명환, 2017),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핵공격을 받은 이후 우리의 대응옵션 등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셋째, 최소시간, 최소피해를 내세우고 있는 "기동마비전"의 한계이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연합뉴스, 2017.12.8.)은 '기동에 의한 마비'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공중 및 해상우세권을 조기에 장악하고 상륙 및 기동전력이 적의 중심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격전 전략은 분명히 병력손실을 최소화하고, 후방지역에 제2전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며,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박창희, 2011). 그러나 북한의 최대저항선에 기동전력의 주력을 밀어 넣는다는 점에서 기동의 효과는 크지 않다. 기동전력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측방과 후방이 노출된 상태에서 고립될 가능성, 북한이 밀집된 병력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기동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아가 혼재된 가운데 적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이 제한되고, 화력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국군의 핵심전력이 포위섬멸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로는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목표의 경직성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군사작전을 통해 북중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된다. 시기적으로 군사작전 종결과 전쟁의 종결, 남북한의 통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경선을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는 현재의 전략은 "최소피해"의 원칙을 달성하기 어렵고,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도 않다. 또 최후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제3국이 위협을 느끼고 개입할 개연성도 높다(Henry Kissinger, 2016: 376-381). 아울러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 자체가

행을 통해 기선을 제압하고, 적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을 제거하며,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박창희, 2017: 23-24).

가지고 있는 군사적 부담이 가중되고, 오히려 통일과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통일여건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도 있다(Bruce Bennett, 2015: 145-157).

2. 군사전략 발전을 위한 기존연구 검토

군사전략가들의 고유영역이자 "군사비밀"에 묶여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군의 전면전 수행전략을 검토하기는 어렵다. 많은 연구들은 언론에 공개되거나, 예비역 간부들의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일부의 내용을 토대로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대부분 현재의 군사전략을 보완하거나 가까운 미래의 전쟁수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과거의 전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거나 먼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자료가 크게 제한되지만,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통찰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익(2012)은 한국의 방어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전례를 검토하였다. 1943년 소련군의 다중방어선 구축, 1945년 일본군의 축차적 지연전략, 1950년 미군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 1951년 유엔군의 강화 진지와 화력집중, 1973년 이스라엘의 바레브(Bar-Lev) 요새구축, NATO의 방어전략 변화양상 등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한국군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전략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며, 남북한의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은 일견 합당하다. 또한, 아군의 중심으로서 서울의 위치, 북한군의 전략과 전력, 가공할 공격무기의 배비 등을 고려하여 한국군의 방어전략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충실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휴전선으로부터 근접한 수도 서울에 인구 밀집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발달로 지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자의 유리함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휴전선으로부터의 10km 공간으로는 적의 공격을 지연하거나 완충할 수 없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방어후 반격" 개념의 성공가능성은 점차 낮아져온 것이다.

타국의 사례로 한국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는데, 손한별(2017a)은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콜드스타트 교리(Cold Start doctrine, CSD)"를 사례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재래식 전쟁수행전략을 제시하

였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략적 안정성은 상호 핵무장에 따른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한적 재래전에서의 전략적 시공간을 선점하는 공세적 교리로서 CSD를 분석하였다, 파키스탄의 도발에 대해서 '즉시', '특정 지역에 대해', '전차 및 헬기 위주의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적이 핵반격을 준비할 수도 있는 전략적 시공간 확보를 저지하면서 아군에게 유리한 시공간적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북한, 인도와 한국을 함께 두고 보는 식의 연구는 한국의 지전략적 위치와 특수성을 오판하기 쉽다. 인-파와 같은 지리적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국경으로부터 수도의 거리에서 상대적 이점이 없는 한국의 상황은 인도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한 공지 기동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쟁수행을 추구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피해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개입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이상택(2017)은 북한 핵무기화에 따른 한국군의 군사전략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크게 억제전략과 방위전략으로 구분하여 7가지의 평가요소를 가지고 몇 개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군 단독능력만으로는 억제가 불가능하므로 "동맹에 의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전략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세전략이나 수세-공세전략보다는 공세전략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첨단공격무기체계, 미국의 확장억제, 다층미사일방어체계, 자체 억제능력, 국제사회 공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등을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택의 주장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이 지향하는 목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용납성(acceptability)은 확보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양상과 전략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동맹억제-공세방위라는 선언적 전략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특히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과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실제 전략구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위의 연구들이 장기적인 관점 또는 함의도출을 위한 사례분석에 머물었다면, 박창희(2011; 2017)의 두 논문은 보다 현재적이며 구체적이다. 국지도발, 전면전, 핵위협으로 구분하여 전쟁수행개념을 구체화하고, 개념적 차원에서 억제와 전쟁수행의 연계를 분명히 한 "실전기반 억제전략"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위협과 소모전 전략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격전과 신속결전에 기반한 전쟁수행전략을 제시했다(박창희,

2011). 하지만 여전히 북한 핵과 재래식의 통합된 위협을 별개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동부대에 의한 전격전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그는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하면서, 북한이 보다 고도화된 핵능력에 기반하여 "전략적 포위" 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전쟁수행개념으로 "선제기반 단기섬멸전략"을 제시하였다(박창희, 2017). 문제인식과 목적은 본 연구와 인식을 같이 하지만, 선제, 공격, 섬멸, 기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선제공격의 실현가능성, 제3국의 개입, 북핵 사용가능성, 아군의 과도한 피해 등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홍기호와 권태영(2018)의 연구는 한국군의 新작전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작전개념, 전력체계, 부대구조 및 배치 등 군사기획 3요소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핵전+정규전+비정규전의 "배합전격전(hybrid blitzkrieg)"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심마비 신속결정작전"을 새로운 작전개념으로 제시했는데, 전전장 네트워크, 통합, 중심마비, 신속결정을 주요한 개념으로 내놓았다. 이는 "자위권적 선제공격 준비작전"-"중심마비 종심작전"-"최단기 평양점령 신속결정작전"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2단계 작전에서 "참수작전"을 포함하여 핵위협 제거에 중점을 두고, 3단계에서는 "망치와 모루" 작전을 활용한다. 다만 논문에서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3일 만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작전소요시간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여전히 국경선 확보라는 지리적 여건을 군사작전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능력에 기반하여 전쟁수행전략을 발전시켜 왔을 것이고, 한국군 역시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변화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군사환경 속에서 치러진 과거의 사례에서 무리하게 교훈을 도출하거나, 자의적으로 위협양상을 상정하고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며, 상대의 변화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고려하여 전략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과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위협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안은 전쟁을 회피하게 만들고, 오히려 적의 오판을 유발하여 억제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한국의 전쟁수행전략 발전방향

그렇다면 한국군의 전쟁수행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현재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쟁수행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위협을 상쇄하고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기반 및 기동마비의 작전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화력마비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초전격전"의 전쟁수행개념을 제시한다.

1. "초전격전(Hyper-Blitzkrieg)"의 개념

초전격전은 독일의 전격전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전격전은 적에게 충격을 가해 마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적의 중심인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살상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2차 세계대전 독·소 전역은 독일의 전격전을 통한 섬멸전 전략과 소련의 소모전 전략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은 8~10주 정도면 소련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 기습적인 공격과 전격전을 통해 모스크바 근방까지 진출했지만, 소련군은 전격전의 충격을 흡수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독일군은 전차사단 19개, 기계화사단 15개를 포함한 119개 사단 전력을 투입하여 "쐐기와 함정(Keil und Kessel)" 전법을 추구하였으나, 소련은 303개 사단 규모의 무장력을 바탕으로 국경지대로부터 독일의 전력을 축차적으로 감소시켰다. 열악한 도로환경과 악기상으로 기동력이 저하된 독일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반격을 실시하여 독일의 전격전을 실패로 돌린 바 있다.[3)]

전격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초전격전의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한국군의 전쟁수행개념은 기존의 전격전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1〉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초전격전을 기존의 전격전과 비교한 것이다.[4)] 첫째,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의 전쟁수행개념이다. 초전격전이 전투력의 집중과 속도를 이용하여

3) 1941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전역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이종호, 전갑기, 2017).

4) 군사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와 방법, 분석틀에 대한 시론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오순근, 공형준, 2018).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다는 전격전의 기본 전제를 따르기는 하지만, 전격전은 기동부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군사력의 운용수준과 지역 범위의 측면에서 작전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초전격전은 지역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며, 다양한 전략무기를 통해 적의 중심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수준의 개념이다.

둘째, 초전격전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둔다. 전격전도 기동부대를 통해서 적의 중심을 향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기동부대가 특정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이어지는 전투승리의 핵심요건은 적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적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에서 중심을 마비시키고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 앞서 기존 지역기반 전쟁수행개념을 비판한 바와 같이, 지역을 점진적으로 점령해가는 전격전은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높이고 중국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초전격전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투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핵사용의 위협을 낮추며 궁극적으로는 군사적으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초전격전은 "화력마비"를 방법으로 한다. 적의 전투력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전쟁의 수행의지를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전격전과 초전격전의 전제는 동일하다. 다만 전격전이 기동부대의 속도와 집중을 통해 적을 마비시킨다면, 초전격전은 화력을 통해 마비를 달성한다. 화력전투가 가지고 있었던 제한점들을 군사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박진호, 2020: 251-286) 북한지역에서의 익숙하지 못한 지형과 열악한 도로망, 주력기동부대의 측방노출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북한 역시 한국의 도시화, 기동전력의 상대적 열세, 자원의 결핍 등을 고려하여 군사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 한국 역시 전쟁수행의 방법을 기동중심에서 화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불필요한 자원의 손실을 회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적의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 초전격전은 화력마비를 핵심적인 전쟁수행개념으로 제시한다.

넷째, 수단의 측면에서 초전격전은 "미사일" 전력을 핵심수단으로 한다. 이는 정밀유도미사일(PGM)의 사거리 증가, 국방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통한 양적 증강 등을 전제한 것이다. 병력을 비롯한 국방자원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상 기동부대는 완벽한 안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또 북한의 방공능력을 고려한다면 유인 전투기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초전격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초전격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심마비를 위한 일련의 미사일 타격체계, 거부억제 달성을 위한 미사일방어 주기의 완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섯째, 초전격전은 전쟁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짧은 기간을 요구한다. 기존 전략개념에 따르면 전쟁을 종료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된다.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지역 안정화작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의 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초전격전은 기동부대에 의한 지역점령을 추구하지 않고 미사일 수단을 활용한 화력마비를 추구하고, 적 전투력의 섬멸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기간으로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전쟁수행방법임을 의미한다.

〈표 1〉 전격전과 초전격전의 비교

구 분	전격전(Blitzkrieg)	초전격전(Hyper-Blitzkrieg)
수 준	작전적	전략적
목 표	지역 점령	정권 교체
방 법	기동마비 후 섬멸	화력마비 후 정권교체
주요수단	기계화전력	미사일
기 간	1~2개월	1~2주

2. 단계별 작전개념

초전격전은 3단계로 구성된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하면, 각각의 단계별로 작전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해가는 과정은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단계별 작전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對전략적 화력마비(Counter Strategic Paralysis by Fire)"이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북한이 수행할 전략적 화력공격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다. 먼저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화력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자산과 공격자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가 수준의 방어 및 방호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심조건에 근거한 대군(counter-force) 공격을 통해 북한의 공격능력과 보복능력을 제거하는 완전 1격을 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는 즉시 적 최고지휘부를 타격하여 핵공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핵사용 권한이 분산되어 핵사용이 통제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逆전략적 화력마비(Reverse Strategic Paralysis by Fire)"이다. 초전격전의 핵심단계인 2단계의 목표는 신속결정타격(Prompt Decisive Strike)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개전과 동시에(혹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결정적인 전략적 화력공격을 통해 북한의 전쟨지휘체계 중심을 마비시켜야 한다. 이때 물리적, 정신적, 의지적 마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격전이 갖추어야 할 3S인 기습(surprise), 속도(speed), 화력우세(superiority by fire)가 요구되는데, 이는 기동군이 종심을 돌파하는 전통적인 전격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3S가 요구된다. 즉, 초기습(hyper-surprise), 초속도(hyper-speed), 초화력우세(hyper-superiority by fire)가 요구되며, 병력을 통한 돌파가 아닌 미사일과 같은 화력 중심의 공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속종결기동 및 정권교체(Rapid Terminative Maneuver and Regime Change)"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을 제거하고 대안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속종결기동은 "기동을 통한 마비"가 아닌 "마비 후 기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 목표인 마비가 달성된 후 신속하게 기동하여 북한 정권을 제거한 후 親韓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이 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동군 투입은 최소피해의 원칙에 위배되고, 핵사용과 3국 개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속결정타격 단계에서의 아측 타격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북한의 舊정권(Ancien Regime)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 외에도 외교, 정보, 심리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어야 하며 북한 新정부와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5] 이후

5) 본 논문은 국방/군사전략 차원의 목표 및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권교체, 전쟁종결을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북한의 新정부와 협력하여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절차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여건 조성"일 것이다.

〈표 2〉 초전격전의 단계별 작전개념

단 계	작전개념	내 용
1단계	對전략적 화력마비	• 국가수준의 방어/방호체계 • 실효적 대군공격 • 北 화력공격 능력 무력화 • 명확한 핵공격 대응 전략
2단계	逆전략적 화력마비	• 신속결정타격 •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마비 • Hyper-3S: 초기습, 초속도, 초화력우세
3단계	신속종결기동 및 정권교체	• 先마비, 後기동 • 親韓정권의 수립 • 北 신정부와 전쟁종결

3. 수단 및 요구능력

한국이 핵직접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전제이다. 논문은 핵심능력, 주요능력, 기반능력으로 구분하여 초전격전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능력을 제시한다(손한별, 2018: 93-98). 먼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능력"은 화력마비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비핵3원체계"이다. 이는 북한의 중심(重心)인 정권과 핵심지역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조기경보 및 방호능력, 북한의 중심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밀성과 파괴력을 갖추어야 한다. 비핵 3원체계는 파괴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기반 순항 및 탄도미사일(1축), 은밀성과 생존성을 갖춘 "제2격 능력"으로서 해상기반의 SLBM(2축),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투기 탑재 정밀유도미사일과 고폭탄(3축)으

로 구성된다. 특히 기존의 미사일이 충분한 파괴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로운 비핵 3원체계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파괴력과 정확성, 기습공격으로부터 생존하여 "제2격"을 달성할 수 있는 생존성을 가진 입체적 타격능력이다. 핵심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은, 공격 징후와 중심(重心)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ISR 능력, 강력한 파괴력과 정확성을 갖춘 타격능력, 비핵 3원체계를 통합하고 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등이 필요하다. 물론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동시'에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사일의 "양적" 증강도 필수적이다.

다음 "주요능력"은 거부억제 및 작전적 대응을 위한 기존의 능력들을 의미한다. 특히 "미사일 방어주기(Missile Defense Cycle)"를 갖추기 위한 능력은 필수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대량파괴무기를 투발하는 주요 수단으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탐지, 표적화(targeting), 전자전 공격, 선제타격, 방어로 구성되는 일련의 미사일 방어주기를 구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권태영, 2014: 11). 한국군이 구축해온 한국형 3축전력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아시아경제, 2017.10.31.). 이를 위해서는 적의 중심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전략정보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징후 탐지를 위한 GPS 체계 및 감시정찰,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사일 발사 지연·저지를 위한 "발사 직전 교란(Left of launch)" 수행에는 사이버 탐지-추적-공격능력, 탄소섬유탄, 비핵 EMP탄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북한의 지휘통제체계, 이동식발사대(TEL), 주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 대구경 다련장,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있으며, 추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나노기반 발사체 등도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 방어수단으로서 미사일 방어가 요구되는데, 탐지레이더, 다층요격능력, 표적동시처리능력, 수동적 방어수단으로서 핵심자산에 대한 방호능력 등이 있다.

셋째, 핵심 및 주요능력의 기반이 되는 능력도 있다. 첫째, 안보기획 및 위기관리 체계를 들 수 있다. 여전히 군사력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겠지만, 전쟁영역이 다차원으로 확장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이 전쟁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주적 억제능력, 다자협력을 통한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 등 전쟁 가능성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親韓정부의 수립 및 新정권과의 전쟁종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조정능력은 필수적이

다. 둘째는 초전격전의 작전개념을 전담수행하기 위한 부대이다. “화력마비”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와 “신속종결기동”을 위한 입체기동부대를 예로 들 수 있다(송영무, 2020: 45, 52). 전략사령부는 비핵3원체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입체기동부대는 화력과 기동력, 전자기 및 사이버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적 중심에 대한 접근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은 국민에 대한 방호이다. 특히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 국가적 대피시설, 국민교육, 복구자산, 구호 및 지원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김열수, 2017; 이춘근, 2017).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의 피해를 줄여 거부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져온 위협의 변화도 강력하지만, 미사일 기술의 발전과 첨단 군사기술이 가져온 전쟁혁명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획함에 있어 위협을 상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핵사용과 제3국의 개입을 방지하면서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전략 개념은 지약기반전략과 기동마비전을 추구한다는 제한점이 있고,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을 상쇄하기 어렵고,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기반을 두고 획기적인 군사전략의 전환을 위해 “초전격전”을 제시하였다. 초전격전은 전략적 수준의 전쟁수행개념으로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미사일 전력을 핵심수단으로 하는 화력마비를 추구한다. 북한의 전략적 화력공격 효과를 상쇄하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며, 정권제거 및 대안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각 단계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전략개념의 달성을 위해 화력마비를 위한 핵심능력, 미사일방어주기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능력,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계, 전담부대의 창설, 국민방호 등은 기반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내부의 불안정 심화나 제재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초전격전이 작전적 수준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략변화의 논쟁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시작점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셋째, 소모전이 아니라 중심 마비를 통한 승리를 전략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획기적인 전략변화를 꾀하였다. 한국군이 선언적으로만 중심 마비를 목표로 제시하여 불균형을 초래하였던 전략목표와 방법, 수단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Harry Summers, 1981: 3). 사실 모든 전쟁은 예측실패의 역사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굴욕적인 패배 이후에 군사혁신에 나서는 것은 그 손해가 너무나 크다. 전략의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70년간 북한의 전면전을 억제해온 기존의 전략에 대한 "성공의 함정(success trap)"을 주의해야 하며, 여전히 6.25전쟁의 경험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새로운 위협과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전략변화에 대한 조직의 관성이나 군별 파벌주의(factionalism) 역시 엄격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군사전략의 체계적 발전이 요구된다.

투 고 일: 2020. 07. 13.
심사완료일: 2020. 10. 14.
게 재 일: 2020. 11. 30.

6) 프랑스는 "마지노선(Maginot Line)"으로 국경을 지키고자 했지만, 독일 기동부대가 우회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소련군과 총력전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쟁예측은 거의 실패로 돌아간다(Raphael Cohen et al, 2020: 5-9).

참고문헌

계중읍 등. 2009.『한국군 미래전투체계 발전방향 연구』.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고원. 2011.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국방정책연구』. 제26권 4호.

국방부. 2018.『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권양주. 2014.『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권태영. 2014.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전략과 소요 전력체계 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김열수. 2017.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전략.”『신아세아』. 제24권 3호.

김정익. 2012. “전례(戰例) 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어전략 모색: 군사전략의 의미와 방어전략 유형을 중심으로.”『국가전략』. 제18권 1호.

김태현. 2015.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전략연구』. 제66호.

_____. 2016.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국방정책연구』. 제31권 4호.

_____. 2020. “군사력 균형 평가도구로서 ‘총괄평가’: 개념, 절차, 방법론.”『국방정책연구』. 제36권 1호.

김태형 등. 2019.『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류기현, 조홍일, 차명환. 2017. “전시억제이론과 한반도 적용.”『국방정책연구』. 제33권 3호.

박상섭. 2018.『테크놀로지와 전쟁의 역사』. 파주: 아카넷.

박진호. 2020.『군사력 건설과 무기체계론』.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박창희. 2011.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국가전략』. 제17권 3호.

_____. 2017.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국가전략』. 제23권 4호.

박휘락. 2018. “비핵화 협상 BATNA로서의 군사적 옵션 논의 방향.”『국방연구』. 제61권 2호.

부승찬. 2017. “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과 핵전략: 포위심성(siege mentality)의 적용.”『국가전략』. 제23권 2호.

손한별. 2017a. “인도의 ‘Cold Start’: 전략적 시공간의 선점.”『국방과 기술』. 제464호.

_____. 2017b.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군사전략』. 제23권 4호.

_____. 2018.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신아세아』. 제25

권 2호.
송승종. 2017. "'참수작전'의 국제정치적 의미: 국제규범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송영무. 2020.『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서울: 박영사.
오순근, 공형준. 2018. "한국군 군사전략의 역할과 전략구상에 대한 담론."『국방정책연구』. 제34권 4호.
외교부. 2013.『군축·비확산 편람』. 서울: 외교부.
이상택. 2017. "북한핵 무기화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 선택."『동북아연구』. 제32권 1호.
이성연 등. 2008.『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론』. 대구: 황금소나무.
이원락. 2003.『정보화시대 미래전 유형과 분석』.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이종호, 전갑기. 2017. "제2차 세계대전 독소 전쟁 초기의 독일과 소련의 군사전략 비교 연구."『군사』. 제103호.
이춘근. 2017,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방호 및 민방위체제 개선방안."『STEPI Insight』. 제217호
이호령. 2017. "북핵 위기, 한국의 현실적 대응 방안."『자음과모음』. 제35호.
임인수 등. 2013.『한반도에서 신합동작전 수행개념 연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상돈. 2013.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독일통일 총서 1: 군사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2016.『전쟁론(Vom Kriege)』.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합동참모본부. 2014.『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2021-2028』. 서울: 합참.
홍기호, 권태영. 2018. "북한의 핵사용-단기 속전속결 전략 대비 한국의 신 작전개념 수행방안 구상."『전략연구』. 제25권 1호.
황소희. 2018.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거 가능성 고찰: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통일과 평화』. 제10집 1호.

Bennett, Bruce W. 2015.『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역. 서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Cohen, Raphael, et al. 2020. "The Failures of Forecasting the Future."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Project Overview and Conclusions*. Santa Monica: RAND.

Echebarria, Antulio J. 2007. *Imaging Future War: The War's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Visions of Wars to come 1880-1914.* New York: Praeger.

Freedman, Lawrence. 2017. *The Future of War: A History*. New York: Hachette Book Group.

Friedman, George and Meredith Friedman. 1998.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Crown Publisher.

Johnson, Robert A. 2014. "Predicting Future War." *Parameters*, Vol.44, No.1.

Johnston, Patrick B. 2012. "Does Decapitation Wor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argeting in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Kissinger, Henry. 2016.『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이현주 역. 서울: 민음사.

Latiff, Robert H. 2017. *Future War*. New York: Alfred A. Knopf.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Washington DC: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Hanlon, Michael. 2018. *Forecasting Change in Military Technology, 2020-20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Scales, Robert H. 2016. *Scales on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Summers, Harry G. Jr. 1981. "The Astarita Report: A Military Strategy for the Multipolar World." *Occasional Paper.*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Winkler, John D. et al. 2019.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Warfare and Implications for Personnel Policies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anta Monica: RAND.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화해협력정책."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20.6.10.).

시사포커스. 2015.8.27.

아시아경제. 2017.10.31.

연합뉴스. 2016.6.27.; 2017.12.8.

YTN. 2016.3.7.

Change of Strategic Environment and Korea's War Strategy: "Hyper-Blitzkrieg" through Strategic Paralysis by Fire

Yoonkee Han and Hanbyeol Sohn

This paper aims at how the Korean military will plan and prepare for war in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The change i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critical and imminent, and the development of missile technology and the "war revolution" brought by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are leading to changes in the aspect of war. In planning the war, the Korean military needs to meet the strategic requirements of countervailing threats, minimizing damage, preventing nuclear use and third-party intervention, and achieving the defense goal of conditions shaping for reunification. To meet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strategic needs, this paper put forward "Hyper-Blitzkrieg" as the concept of Korea's war strategy. Hyper-Blitzkrieg is a strategic level concept, which aims to change the regime of North Korea and seeks strategic paralysis by fire with missile as a key means. It aims to prevail the effects of North Korea's strategic surprise attacks, paralyze the North's ability and will to conduct war, remove the regime and establish an alternative regime. In order to achieve the strategic concept, "core capability" for paralysis by fire, "major capability" for completing the missile defense cycle, national security and crisis management systems, the creation of designate units,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were presented as "infrastructure capability."

Keywords: War Strategy, Blitzkrieg, Hyper-Blitzkrieg, Paralysis by Fire, Rapid Terminative Maneuver, Regime Change